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

2021년 2월 26일 (금) 14:00 | 온라인 생중계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

PROGRAM

❖ 일시 | 2021년 2월 26일 (금) 14:00

❖ 장소 | 온라인 생중계

❖ 주최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프로그램

사회: **하형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장

시 간	행 사 내 용
13:30 ~ 14:00	등록 (온라인 접속)
14:00 ~ 14:05	• 개회 - 인사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14:05 ~ 14:30	• 기조발제 청소년정책, 코로나 딛고 뉴노멀 시대로 한 걸음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4:30 ~ 14:40	휴식 및 라운드 테이블 준비
14:40 ~ 15:40	• 라운드 테이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 좌 장: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패 널: 윤여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부장 최연수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상임이사 김민환 거제제일고등학교 교장
15:40 ~ 16:0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00	폐 회

CONTENTS

기조발제

- 청소년정책, 코로나 딛고 뉴노멀 시대로 한 걸음 1
김현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라운드 테이블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 1. 청소년활동, 팬데믹을 뛰어 넘어라 “위기가 곧 기회다” 11
윤여원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 2. 위기를 기회로: 온택트로 청소년 심리지원 사각지대에 접근하다 19
소수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부장
 - 3. 포스트 코로나, 학교 밖 청소년의 새로운 성장지원과 대안모색 24
최연수 |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상임이사
 - 4. 팬데믹 시대 청소년 진로지도 지원 28
김민환 | 거제제일고등학교 교장



기조발제

청소년정책, 코로나 딛고 뉴노멀 시대로 한 걸음

—
김 현 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기조발제

청소년정책, 코로나 딛고 뉴노멀 시대로 한 걸음

김현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1. 디지털 네이티브의 날개짓으로

1킬로그램 남짓. 전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합친 무게다. 이 가볍디 가벼운 미물이 짓누르는 무게감에 온 인류가 긴 시름에 빠졌다.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시름은 점점 깊어가고 긴 터널의 끝은 보일 듯 말 듯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뉴노멀 시대로 향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4차 산업혁명을 앞질러 미래사회로의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술의 문제를 넘어 '오래된 미래'의 가치에 눈 돌리고, 앞만 보고 달려온 근대인들의 삶을 성찰하게 만들었다. 이미 하나의 트렌드가 된 미니멀리즘, 단샤리(斷捨離)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문화로 승화시키려 하고 있다(관행적으로 해오던 행사나 집단적인 의례 또는 관습에 대한 생각도 바뀌놓고 있다). 재난지원금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본소득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코로나발 사회정책은 사회정책의 지형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기존의 사회정책을 해체(destruction)시키고 재구조화(restruction)하는 일이 불가피해질 듯하다. 청소년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청소년정책은 뉴노멀 시대를 쫓아갈 수 있을까? 앞서 갈 수는 없을까?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활개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2. 격차, 코로나 블루 그리고 열린 가능성

1년이 넘는 긴 시간. 청소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학력격차는 더 벌어지고,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우울, 불안, 무기력감을 호소한다. 교사들의 고군분투에도 교육결손을 막을 수는 없었다. 긴급지원팀이 가동됐지만, 결손의 틈새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족 내 갈등은 늘었다. 부모들의 고충도 크다. 아동학대 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사건보도로 모든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시스템 부재의 상황

은 명백히 드러났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쉼터 문 앞에서 발 길을 돌려야 했다. 세상을 체험할 기회와 얼굴을 맞대고 뛰어 놀 시간은 줄어들었다. 당연히 규칙적인 생활은 흐트러지고, 잠은 늘었다. "잠이 많이 는 것 같아요."¹⁾ 부모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시간들이다.

하지만 잠이 늘었다는 것을 반드시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다. 만성적인 수면부족 상황에서 언제 이렇게 또 해방을 맞볼 수 있을까? 규칙적인 삶을 강요해온 근대적인 시간과 근대교육의 시간표를 잠시 멈춰 세우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하면, 그래서 나아가 근대인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과 근대교육의 판을 재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면 마냥 나쁜 신호는 아닐 것이다. 이미 근로시간은 유연해지고 있으며, 주4일 노동도 실험대에 올랐다. 이런 변화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로 예견되던 것이지만, 근대적 시간(모던 타임즈)을 해체시킬 호기를 맞게 되었다. 미네르바 스쿨이 근대적 학교시간을 해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당분간은 학교도 근대적인 학교의 시간표도 굳건하겠지만,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원격수업이 보편화되면 시간표는 개별화되고(성공여부를 떠나서 고교학점제도 개별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대안적인 교육의 선택지도 넓어질 것이다.

학력격차가 벌어졌다지만 학습결손이나 문화적 결손을 보상적인 학습지원으로 메울 수 있는지 여부는 오래된 논란거리다. 공적인 서비스가 격차의 심화를 막을 수는 있어도 격차 자체를 해소하는 데 성공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학력지상주의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한 격차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비대면 상황의 확장세는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확장시킬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무성의하게 채워진 온라인 원격교육은 청소년들의 학습동기를 저해하고, 학습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교사들도 난처하게 만들지만, 역동적인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도 있다. 박람회나 토론회 등 온라인으로 대체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참여와 흥미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의 상황이 좋다는 청소년들도 제법 있다. 민츠라는 여고생은 뉴욕타임즈 칼럼을 통해서 교실의 방해꾼들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원격교육을 예찬한다.²⁾ 민츠의 경우와 같은 국내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집중도를 높일 수 있었다는 사례도 많다. 이주배경 청소년들이나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잘 이루어진 교육사례도 있다.³⁾ 체험에 크게 의존해왔던 진로교육이 비대면

1) 신나는애프터센터가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공통적으로 잠이 늘었다고들 한다. 다만, 갇힌 신체의 고충을 토로하는가 하면, 지금의 상황에 잘 적응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2) Mintz, Veronique(2020.5.5.). 'Why I'm Learning More With Distance Learning Than I Do in School'(<https://www.nytimes.com/2020/05/05/opinion/coronavirus-pandemic-distance-learning.html>)

상황에서 더 다양해진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무기력에 빠지거나 블루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상황이 가벼운 것은 아니다. 민츠의 학습을 방해했던 아이들의 상황은 어떨까? 왜 누구는 좋고, 누구는 코로나 블루를 앓는 것일까? 어떤 온라인 진로박람회는 규모만 컸지 참여도 낮고, 성과도 없는 반면 어느 진로박람회는 참여도 높고 성과도 오프라인 박람회를 능가하는 것은 왜일까? 개인적인 성향도 작용할 것이다. 좀 더 자기주도적인 청소년들에게 비대면이나 원격수업은 오히려 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온라인이라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작용이다. 성공적인 사례는 온라인을 통한 상호작용의 장점을 살린 경우다. 고전적인 수업의 방식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옮겨 놓으면 좋은 수업이 되기 힘들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좋아하는 것은 온라인 그 자체가 아니다. 박람회도 체험활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언젠가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면 오프라인 활동은 상당부분 회복 되겠지만, 온라인 활동과 온라인 교육의 가능성을 경험한 것은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온라인 상황에 놀랍도록 잘 적응한 청소년들의 사례나 그런 상황을 도출해낸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의 가능성이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청소년도 현장 전문가들도 진화했다. 이런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 비대면의 가능성이 더 넓게 열리고 저출산의 파고가 위협하는 상황을 청소년정책이 앞질러 가는 길이다.

3. 디지털 크리에이팅으로 리드하자.

화상회의 기술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진전 덕에 다양한 비대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다. 우려했던 트래픽이 큰 변수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터넷 인프라는 잘 갖추어졌다. 포노 사피엔스의 손엔 스마트 폰이 쥐어져 있다. 문제는 인프라의 부족이 아니라 애자일(agile)의 파토스(Pathos) 부족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업의 생태에서는 혁신 자체가 경쟁력이며, 지금은 디지털 혁신이 경쟁의 핵심키다. 디지털 혁신의 파토스는 애자일이다.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유동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반면, 공공 부문에서는 그만한 치열함은 없었다.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지배적이다. 위키피디아가 지식생산의 판도를 바꾸었지만, 학교교육은 지식을 여전히 무겁고 더딘 국가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담고 있다. 공공의 청소년 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지금까지는 창의와 창조보다는 안전과 인증이

3) 장훈성(2020). '코로나 시대의 다문화가정교육, 새로운 가능성을 보다'와 홍문화(2020).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질서를 꿈꾸며'(김현철 외, 2020,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더 강조되었다. 반면 민간부문에서의 다양성과 혁신성은 공공부문을 위협할 정도다. 경계가 무너진 디지털 세계의 확장으로 경쟁자들은 더 많아졌다. 교사들도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청소년지도자들도 마찬가지다. 시설이나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은 비대면 상황의 확장으로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 교실의 벽도 무너지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는 더 이상 한 학교, 한 기관, 한 지역의 전유물로만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온라인 콘텐츠가 공유되는 생태에서는 각자 도생으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온라인 콘텐츠 시장은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청소년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창의적이거나 경쟁력 있는 콘텐츠만 살아남는 생태가 조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을이 '단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을 뿐'인 공간⁴⁾이라는 말은 디지털 세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디지털 원주민들은 지리적 마을이 아니라 디지털 마을에 살고 있는지 모른다. 사회서비스도 지리적 한계를 넘어 디지털 공동체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재외동포청소년에 대한 국내 상담가들의 온라인 상담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다. 이제는 디지털 기술로 디지털 세계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길어진 비대면 상황이 열어준 가능성의 세계다. 이제는 더 쉽게 더 가볍게 세계와 소통할 수 있다. 청소년들도 세계시민으로서 연대하기 쉬어졌다.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좋다.

모두 디지털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겠지만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디지털 크리에이팅 과정이 없어서는 미래세대를 다루는 전문가로 살아남기 어렵다. 청소년지도자 양성과정도, 자격검정도, 보수교육도 디지털 혁명의 파고 앞에서 갈 길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교육으로 푸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원주민인 청소년들에게만 날개짓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날개짓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기 발휘로 가능성을 보인 전문가들이 있다. 전문가들이 맘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 플랫폼이 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굳이 말하자면, 애자일의 프로그램 생산 플랫폼이다. 앱스토어 같이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공익이 돌아가게 하면서 민첩하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수정되는 디지털 플랫폼일 수도 있고, 현장의 전문가들이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오픈된 플랫폼일 수도 있다. 창의적인 개발자들의 동기를 자극하거나 개발자들에게 이익(또는 포상)이 돌아가는 방식이면 좋다. 누구나 자유롭게 플랫폼에 프로그램 아이디어나 사례를 탑재하고, 누구나(또는 멤버십 소유자) 댓글을 달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화 또는 개선되어 가는) 디지털 프로그램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

4) 김경옥(2020). '코로나19로 더 간절해진 마을의 교육력'(김현철 외, 2020, 「코로나 19 확산 및 이후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로 전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푸른성장대상’을 경쟁적인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을 것이다(예를 들어, 단계별로 씨드머니를 주고, 1라운드 통과자로부터 경쟁하여 최종라운드 통과자에게 포상하는 방식). 지도자 부문에서도 청소년 부문에서도 가능하다. 같은 방식으로 클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참여를 확산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다(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온라인 플랫폼인 미국의 ‘DoSomething.org’나 교육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 옴[www.yeep.kr]의 가상 클라우드 펀딩 방식 등을 응용할 수 있다). 창의적인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 발휘되고 공유되는 디지털 크리에이팅의 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큰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도 않다.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뉴노멀 시대를 이끌 수 있다.



라운드 테이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청소년정책이 나아갈 방향은?

▶ 좌 장 :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패 널 : 윤여원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소수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부장
최연수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상임이사
김민환 거제제일고등학교 교장



라운드 테이블1

청소년활동, 팬데믹을 뛰어 넘어라 “위기가 곧 기회다” (성남시청소년재단 코로나19 대응 추진내용 중심으로)

윤여원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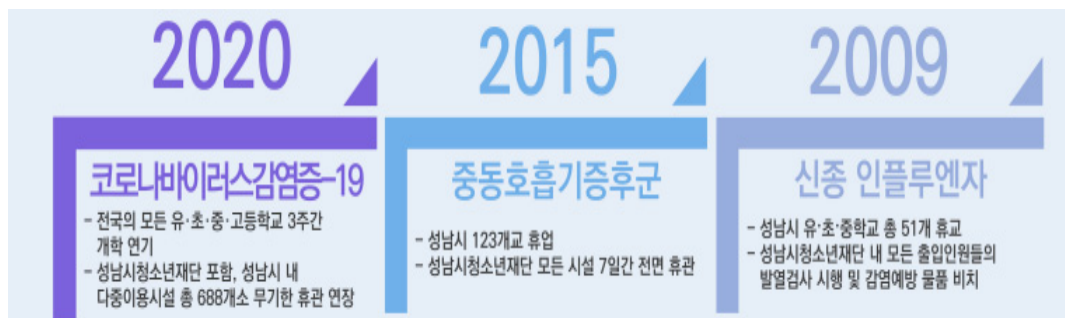
1 제1기 : All Stop?

① 법정 감염병의 반복적 & 주기적 발생 및 지역사회

지난 2020. 2. 23 코로나 19로 급격한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었다. 2009년 신종플루 사태이후 11년 만에 ‘중앙 안전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범 부처 대응을 하였으며, 성남시와 청소년시설도 방역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 하였다.

돌아보면 2002년 사스 바이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바이러스 등 법정 감염병은 주기적, 반복적으로 발생 되었고,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과 학교의 휴교 및 휴관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행해지는 대응책들은 우리 사회 문화를 바꾸고 16만명의 성남시 청소년의 삶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 활동에 대한 지원 전략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ISSUE PAPER 2020-1호)



② 지역사회 감염확산 예방 대책과 청소년 활동에 영향

2020년 코로나 19로 청소년들이 항상 가는 학교와 방과 후에 올 수 있는 청소년기관, 유관기관들은 시설 운영 중단과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영하고 있어 현재까지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관에서 처음 경험해 보는 코로나 19 여파로 기관 종사자들은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③ 사회적인 ISSUE (라면 형제...)

2020년 인천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이른바 ‘라면 형제’ 중 동생이 사망은 사고 있었다. 대통령 및 정부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학대 아동이나 돌봄 방치 아동의 경우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로 보호하는 조치까지 포함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없는지, 적절한 방안을 찾아 보완해 달라"고 특별히 주문 하였다. (출 처 : MBC 뉴스 2020. 9.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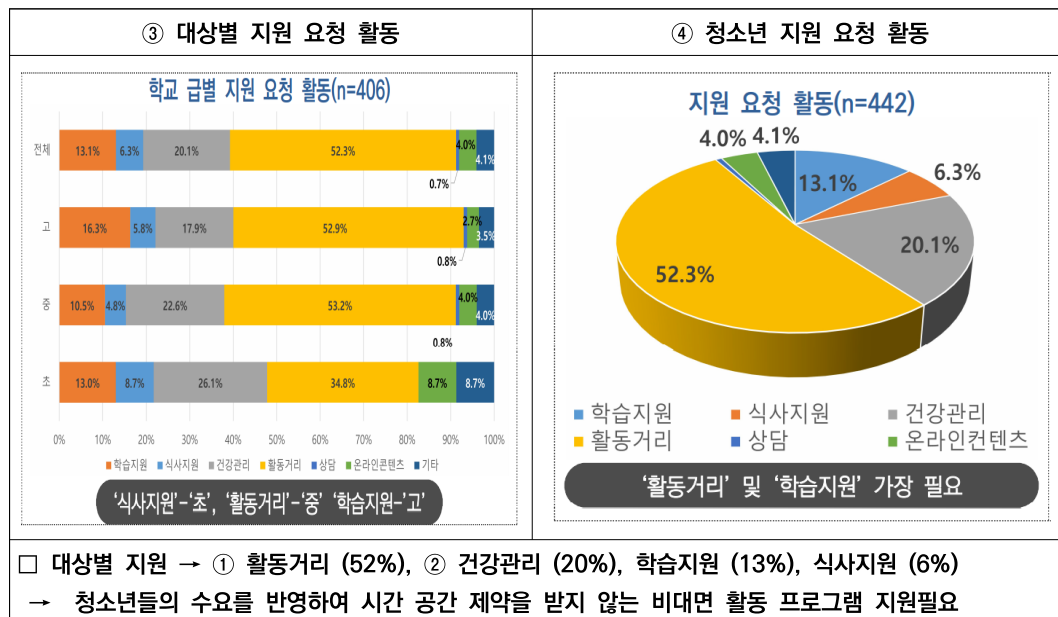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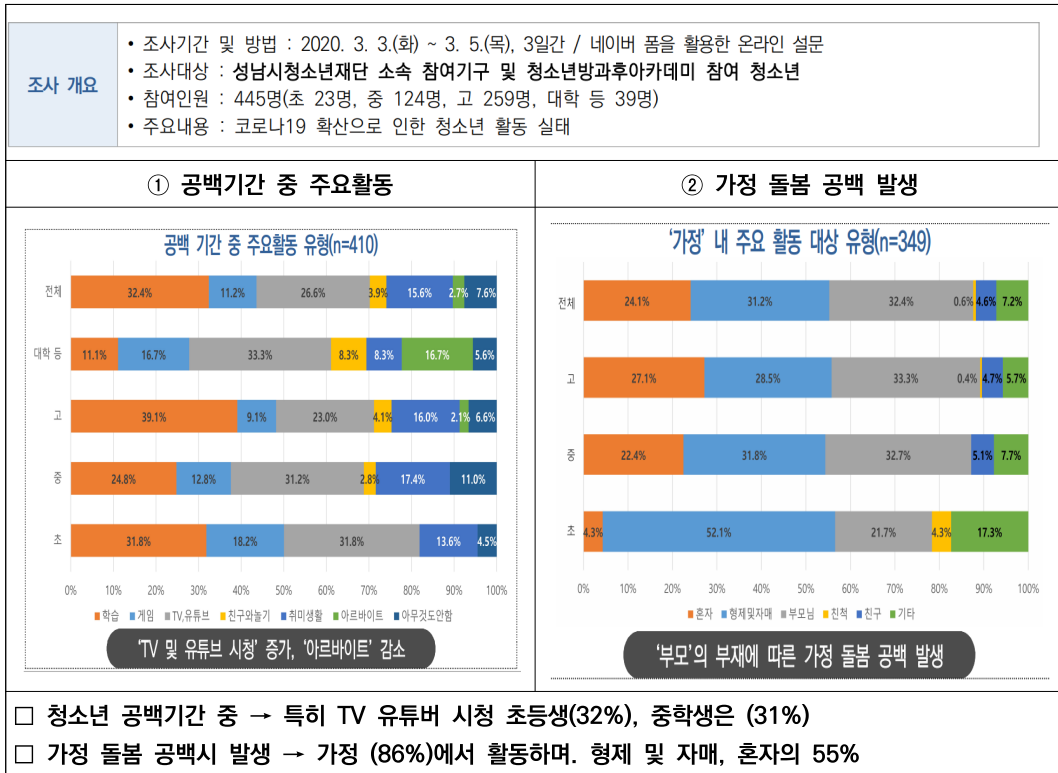
Ⅱ 제2기 : Redy go _ Start!!

① 청소년 사각지대의 발생과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학교 및 청소년시설 장기간 휴관 상황에서 우리의 서비스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생활 실태와 서비스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지원 방안이 요구되었다. 대응전략이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청소년, 특히 취약 계층의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현 가능한 전략을 구상 하였다.

② 청소년재단 소속 참여기구 및 방과후아카데미 생활실태조사 실시

(출처: 성남시청소년재단: ISSUE PAPER 2020-1호)



③ 제3기 : Challenge !!! + ing

① 성남시청소년재단 현안분석과 빠른 대응 및 정책 방향 수립

2020.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청소년 생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체계화하였다. 그로인해 대면적 요소와 비대면적 요소를 결합한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 변화 등 필요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시설 휴관이 장기화됨에 따라 저소득, 장애,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으로 먼저 긴급 돌봄을 지원하였으며, 대상별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제작, SNS를 활용한 활동거리 지원 등 다각도로 빠르게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였다.

성남시가 다행인 점은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전년도(2019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직원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활용이 어느정도는 친숙해졌다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와 도전' 이었다.

② 기관에서의 청소년지도자의 고민

단순히 화상회의를 하고 활동거리를 제공하는 일차원적인 접근을 넘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였다. 계속되는 비대면 활동과 교육으로 지친 청소년들의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 현장을 뒤통수 받침 할 수 있는 비대면 신규 콘텐츠 사업도 개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전략을 바탕으로 옆자리 동료들과도 치열하게 고민하여, 청소년 활동의 디지털화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시설의 문은 잠겨 있어도 우리의 청소년 활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4 제4기 : Service 제공 = 대면 VS 비대면

① Ontact 청소년 활동거리

		
전국최초 글로벌 Ontact 청소년어울림 마당	관용차를 활용한 토크 콘텐츠 「드라이브 토크쇼 - 캣캣」	청소년 에코 플로킹

② 대상별 맞춤형 비대면 프로그램

		
초등 저학년 온&온 돌봄	청소년 비대면 프로그램 (진로 꾸미담)	후기청소년 장애인식개선 (C.O.C)

③ 네트워크 강화

		
성남청소년균형동반 협의체	청소년 CSR 사업 확대	빅 데이터 기반 청소년 정책대회

④ 급식, 간식거리, 학습지원

 '똑똑! 행복반찬'	 '똑똑! 건강 기르기'	
청소년 급식 간식 (반찬)	학습기구 및 체육용품 키트	학습지원 사업

⑤ 제5기 : Development!! = Big data

이제 거의 코로나19로 기관 운영 중단과 일부 운영재계를 반복하면서 거의 1년 이 지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 2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하향되면서 전 시설 사회적거리와 직원들의 재택근무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점점 삭막했던 수련시설에 다시 활기가 찾아오는 듯 하였으나, 우리의 노력이 무색하게 또다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코로나 환자 (2월 15일 :457명)에서 오늘(2월 17일 : 621명) 200명 가량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재단은 1년 동안 사회변화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통해 재단의 역할과 목적을 찾아갔고, 나아가 재단에 존재 이유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대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연구자료로는 코로나 백서, 이슈페이퍼 발간과 청소년재단 콘텐츠(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하였으며 지적 재산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대면 행사 안전메뉴얼과 행사 메뉴얼을 개발하여 유관기관들과도 공유하였다.

① 이슈페이퍼 & 지적 재산권 도입 & 코로나 백서

현) SN. UTH 이슈페이퍼 2020-3호 개발	지적 재산권 (6개)

② 비대면 안전메뉴얼 & 비대면 행사 메뉴얼 개발

최초 비대면 안전 메뉴얼	청소년 비대면 어울림 마당 메뉴얼

⑥ 제6기 : Learn & Restart

① 대한민국 청소년지도사의 저력

코로나 19는 우리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고, 어느새 우리는 적응해갔다. 올 한해를 돌아보면 언젠간 해야 하는 숙제를 빠르게 한 기분이다. 이전부터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지털화 되어왔고 3년 전부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 활동 분야의 대부분은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걸릴 디지털 전환이 2개월로 단축되었다”고 말한 것처럼 코로나19가 느리게 가며 항상성을 유지하던 청소년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우리는 당면한 과제를 누구보다 빠르게 해결하여 항상 주변에서 의문을 가지던 청소년지도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② 새로운 도전

그렇기에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야한다. 현장중심의 노하우를 발판으로 디지털 시대에 따뜻한 감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며 얻은 지성으로 청소년들과 발 맞추어 갈 것이다.

올 한해 굳게 닫힌 차가운 건물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청소년을 위해 노력한 옆에 있는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격려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소한 일상에 대한 감사를 배웠으며, 함께였기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라운드 테이블2

위기를 기회로: 온택트로 청소년 심리지원 사각지대에 접근하다

소수연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부장

2020년 코로나 19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학교가 폐쇄되고 사람이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도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등 부정적인 심리 변화를 지금까지도 겪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위기 청소년들을 대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고, 기존에 진행했던 사업을 확장시키기도 하였다.

1. 청소년 맞춤형 ‘화상상담 매뉴얼’ 최초 개발로 중단없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가장 시급했던 문제는 위기청소년들을 대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날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대면상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비대면 상담 방법 중 하나인 ‘화상상담’을 선정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화상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지금까지 상담 현장에서는 상담자와 내담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면상담이 일반적인 방법이었으므로, 화상상담 관련 매뉴얼이나 참고할 만한 자료는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기관에서는 화상상담 매뉴얼 개발 TF팀을 조직하여 청소년상담 현장의 화상상담 실태조사와 화상상담을 시도하고 있는 몇몇 기관의 전문가를 비대면으로 인터뷰하고, 관련 연구와 해외 자료들을 토대로 청소년 내담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매뉴얼 개발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화상상담의 장점과 다양한 활용 방안을 알게 되었다. 연구에 의하면, 화상상담은 전화나 채팅상담과 같은 다른 비대면 상담보다 대면상담의 특성 및 효과성이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화면을 통해 내담자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 상담자가 시각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며, 내담자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상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보다 솔직하게 드러내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시간을 맞추기만 하면 온라인에서 만나 상담을 할 수 있으므로 해외 내담자나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든 내담자도 상담에 참여 할 수 있다. 또한 상담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인 효과도 높고, 상담 장소를 오가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이와 같은 화상상담의 장점을 토대로 청소년상담 현장에서 실제 화상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 절차와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개발된 ‘화상상담 매뉴얼’을 8월 말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청소년복지시설 590개 기관에 보급하고, 이후 청소년상담기관과 상담관련 학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 수차례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상담 현장에서 화상상담에 대한 정보가 절실했지만 관련 자료들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이후 코로나 19가 확산과 진정 국면이 반복되었지만, 청소년상담 현장에서는 화상상담을 통해 상담서비스가 지속되어 주요 상담 방법으로 자리 잡아 2020년에 전국 약 4만여명의 청소년들이 화상상담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화상상담과 사이버상담으로 사각지대 청소년에게 다가가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상상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우리 기관이 화상상담 매뉴얼을 개발하면서 얻은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는 우리 주변에 심리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새로운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비대면 상담 방법으로 기존의 대면상담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상담을 하기 어려웠던 청소년에게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화상상담의 장점을 활용하여 대면상담이 불가능했던 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해보기로 하였다. 기관에서 주목한 대상은 해외교포, 도서산간, 병원학교(소아암 등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습을 제공하는 기관) 청소년들이었다. 이들은 물리적인 제약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심리지원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우리 기관에서는 해외교포 청소년 중 우리 기관과 교류가 있는 국가의 한인학교 2곳과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도서산간 청소년 중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12명을 선정하여 이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우리는 상담을 통해 이들이 진로와 학업, 대인관계 등의 문제로 고민이 많았으나 주변에 함께 나눌 대상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실제로 화상상담을 실시해 본 결과, 시차와 디지털 기기 관련 문제만 해결이 되면 공간적인 거리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실제로 화상상담 만족도도 대면상담과 유사하였고, 상담받은 청소년들을 추후 인터뷰한 결과 긍정적인 경험을 보고하였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런 말까지 해도 되나? 나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점차 그런 생각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화상으로 상담을 한다는 게 좀 신선했어요. 화상이든 오프라인이든 마주보고 이야기 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니 만나서 상담하는 거랑 같았어요.” (해외 한인학교 청소년)

“화상상담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상담하러 가는 거리가 좀 있어서 번거롭고 불편한 게 많았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니까 편하게 빨리 상담 마치고 시간 맞춰 학원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좋았어요. 직접 만나서 상담하지 못해도 화면으로라도 만나면 친근감도 느껴지고, 어쨌든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갈 수 있다면 직접 가서 상담도 하겠지만, 바쁠 때는 화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국내 청소년)

화상상담뿐 아니라 PC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이버상담도 사각지대 청소년들에게 상담의 접근성을 높이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 기관은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1388(www.cyber1388.kr)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청소년들의 사이버상담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사이버상담 역시 비대면상담 방법 중 하나로, 등교와 친구들과의 만남이 불가능해지고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심리 건강을 지켜주었다. 작년 사이버상담센터를 방문하여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한 청소년이 약 32만 명으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한 것은 사이버상담이 코로나 19로 어두운 청소년 마음을 밝혀주는 사이버 청소년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코로나 19 청소년 우울·불안 심리 해소에 적극 개입하다!

어느덧 코로나 19가 확산 된지 1년이 되었고, 아직도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제한된 생활이 지속되다보면 누구나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

년들은 한창 활동량이 많고, 경제적·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어른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심리 건강 상태가 더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1년 간 코로나 19로 인한 불안과 우울이 심화되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기관은 작년 5월, 코로나 19의 1차 확산 후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코로나 19로 인해 청소년의 69.8%가 불안/걱정, 36.6%가 짜증, 31.7%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든 점으로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72%)’, ‘온라인 개학(64.6%)’, ‘외출 자제로 집에서만 지내야 하는 갑갑함(62.2%)’ 등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도움받고 싶은 점으로 ‘상담 혹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상담받고 싶은 내용으로는 ‘부정적 감정 해소’ ‘가족과의 긍정적 관계 유지’, ‘학습 및 진로 상담’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사이버상담센터 실적을 살펴보면, 불안·우울을 호소문제로 상담한 사례 수가 전년대비 약 6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0년에는 사이버상담센터와 우리 기관의 청소년 고민 해결 유튜브 ‘고민프리 상담소’ 등을 통해 청소년과 부모 대상으로 심리건강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불안·우울 청소년 개입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로 제작하였고, 올해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복지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우리 기관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대응 청소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심리·정서적 적응을 돕는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여 청소년상담복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 제언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그러한 작년 한 해 이와 같은 상황들을 지켜보고 대응을 하면서 느낀 점은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이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반응해야한다. 물론 지금의 상황이 부정적인 것은 맞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려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화상상담에 대해 고민하다보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청소년들을 알게 되고, 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은 상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앞으로 상담 기관들도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내담자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새로운 과학 기술에도 저항이 낮기 때문에 청소년 기관에서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자를 포함한 청소년지도자들의 넓은 시각과 열린 마음이 중요하며 다양한 접촉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라운드 테이블3

포스트 코로나, 학교 밖 청소년의 새로운 성장지원과 대안모색

최연수 | 한빛청소년대안센터 상임이사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든 분야에서 팬데믹의 혼란을 맞이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9년 3.1- 2020년 2월 말 기준) 전국통계에 따르면 전체 52,261명으로 초등 18,336명(0.7%), 중등 10,001(0.8%), 고등 23,894(1.7%)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으며 매년 최근 5년간의 통계는 비슷한 숫자가 발생하였다. 지난 2020년 3월- 2021년 2월까지의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가 약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공교육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이 비대면 가정학습으로 전환되면서 가정내에 잠재되어 있으며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고 학교가 정상화되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집안에서 혼자 은둔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증가하여 등교하여 활동하기보다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배움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공교육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런 코로나 19의 팬데믹 현상속에 비대면 활동이 준비 없이 갑자기 시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 편차를 낳고, 다양한 교육콘텐츠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쇄적으로 더욱 열악한 시스템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상담-교육-자립역량 강화를 목표로 진행하는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이나 각종 비인가 대안 교육기관도 속수무책으로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기에 어려움과 한계에 봉착되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구축과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1. 발굴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묻혀버린 왕따, 은둔형 청소년의 연계 문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굴과 연계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으로 연계되고 있다. 대다수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개인정보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청소년들의 명단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 꿈드림에 연계되어 전화상담 후에 센터에 내방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한 in-take 작업이 진행되고 상담을 통한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왕따나 우울의 경험으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은 집안에서 커튼을 내리고 은둔에 접어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정신병리적인 문제를 안게 되는 청소년과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통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발굴과 연계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가려져 있기에 이들에 대한 시스템적인 지원방안이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및 각종 대안교육 기관 지원확대

2015년 5월 이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이 발의되어 여성가족부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가 설립되어 정책아젠다에 편입되었고 2021년 현재 16개 시도센터와 203개의 시군구 센터가 개설되어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만, 지자체마다 지원의 편차가 있으며 촘촘한 지원을 위해서는 꿈드림의 인력, 예산, 공간에 대한 확충이 절실하게 필요하고, 비대면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와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마을을 매개로 배움의 장이 확대되어야 하고 전국에 자생적으로 세워진 각종 비인가 대안교육 기관에 실태 파악하고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실제적인 예산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3. 고졸 검정고시 이후 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의 필요성

꿈드림 사업으로 상담과 검정고시 지원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데 고졸 검정고시를 마치고 나면 인턴십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내일 이룸학교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고 대부분 검정고시를 마치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에는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학교 박청소년이 되어 특별한 준비 없이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쉽지않아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발굴-상담-교육-보호-자립이라는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협조적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동반된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현장대응방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실감하고 있다. 어떤 이는 현 상황이 1,2차 세계대전보다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자연스럽게 진입하고 있다. 세계는 더욱 빠르고 섬세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개별 맞춤화가 진화됨과 동시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연결이 진행되고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드림이나 대안교육 현장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이 중요한 시점이 됐고, 교육 현장은 마을과 지역을 넘어 글로벌화 되어야 한다. 다양하게 소통하고 접촉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현장을 개발해야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 후를 대비해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고 통찰하는 능력과 이를 융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기존의 단순 암기 위주의 학습은 지양되어야 한다. 끊임없는 질문과 토론이 병행되어야 하고 쌍방향의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교육시스템은 모든 것이 대학입시에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는 스무 살에 어느 대학에 입학이 인생 전체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생각이 사회 기저에 깔려있고 많은 부모들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대학입시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모든 교육현장이 지독한 입시지옥으로 변했고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은 투자 대비 가성비는 낮아지고 자신의 강점을 특화시키는 교육보다는 입시성적으로 서열화시켜 대다수의 학생들이 좌절과 열등감을 맛보는 기형적인 입시제도가 되고 있다. 이런 교육시스템 안에 있던 학생들이 막상 사회로 나왔을 때 기존의 교육은 오히려 미래사회 능동적으로 적응하는데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를 마치고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갈수록 감소될 것이다. 예냐하면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관계없이 성적에 맞춰 진학하면 대학

에 입학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휴학을 하거나 재수를 하는 등,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고 대학을 막연하게 졸업하면 오히려 취업에 장애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세 이후 후기청소년기에 곧바로 준비 없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2-3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찾는 전환기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행, 아르바이트, 인턴십, 각종 창업활동 등을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전문멘토와 연결되고 실질적인 동아리활동을 통한 자신의 방향을 설정한 뒤에 대학이 필요하면 진학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며 평생학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후기청소년들이 지금 곧바로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소외받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후기청소년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의 자립역량을 강화시키는 플랫폼을 위해 저희 송파지역에 있는 한빛청소년대안센터에서도 청년 실내건축아카데미와 각종 요리창업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창업과 일자리를 통한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 정책에서도 이들 후기청소년들의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지원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센터에 후기청소년들의 활동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사회를 매개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는 학생수 감소로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해 존폐의 위기에 처한 각종 대학을 매개로 하여 후기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속에서 청소년 정책의 다양한 대안을 찾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여성가족부와 청소년 정책연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자리가 단지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고, 후기청소년들의 자립과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청소년들이 대학입시에 매몰되지 않고도 자신의 다양한 영역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후기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이겨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삶의 현장이 되길 소망합니다.

라운드 테이블4

팬데믹 시대 청소년 진로지도 지원

김민환 | 거제제일고등학교 교장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의 팬데믹 상황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큰 후폭풍을 몰고 왔다. 처음에는 몇 주 아니면 2~3개월이면 괜찮겠지 하는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가 사상 초유의 5월 대면 수업을 하게 되었다.

사회 어느 한 분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지만, 학교도 예외일 수 없었다. 특히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들은 더 더욱 힘든 상황이 되었다. 학교로부터의 학습 능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요원한 일이 될수 밖에 없었다. 또한 각종 통계 밖에 존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지도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나마 중고등학생들은 2011년부터 전국의 대부분(일부 시도 전 중고등학교 배치 미완료) 학교에 배치가 되어 진로진학상담 선생님들의 안내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물론 아주 작은 중학교의 경우 1주일 1~2회 방문하여 아쉽기는 하지만 진로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팬데믹 상황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청소년 진로지도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청소년 온라인 심리검사

자아가 형성되기 전인 학창 시절에는 끊임없이 자기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것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알아야 한다. 무작정 무엇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 재미도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매번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잘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된다. 물론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다를 수 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택할 당시의 감정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학창 시절에는 좋아하는 일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 진로 심리검사로서 학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 진로 심리검사는 교육부 주관의 커리어넷(www.career.go.kr)과 고용노동부 주관의 워크넷(www.work.go.kr), 민간 운영의 한국가이던스(www.guidance.co.kr)가 있다.

진로 심리검사는 적성(앞으로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분야), 흥미(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성격, 가치관(진로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 진로발달(진로 관련 객관적인 성숙 정도)과 같은 것들이다.

커리어넷 2020년 진로 심리검사 결과는 356만건으로 2019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직업흥미검사, 직업적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순으로 많이 하였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진로흥미탐색은 55만건으로 2019년에 비해 2.5배 이상 증가하였다.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하면 진로 심리검사를 학교 예산을 확보하여 지필검사를 한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학교 예산이 아닌 온라인 진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상담하기도 한다. 물론 두 가지 모두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더욱이 중학교 자유학년제로 인해 진로 심리검사는 반드시 시행하고 있으며,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중·고등학교 온라인 진로 심리검사		
커리어넷	워크넷	한국가이던스
진로성숙도 검사 직업가치관 검사 직업적성 검사 직업흥미(H) 검사 직업흥미(K) 검사	청소년 직업흥미검사 청소년 적성검사(중) 고등학생 적성검사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청소년 직업 인성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자아존중감 검사 일반 성격 검사 성격강점 검사 자아탄력성 검사 진로지향성 검사 진로고민 영역 검사 진로문제원인 검사

2. 청소년 온라인 진로상담

청소년들은 고민 상담은 친구들에게 가장 많이 한다. 그 다음으로 부모,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는데 팬데믹으로 가족 외에는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상담 내용도 성적이 가장 많이 하는 편인데 2020년에는 등교를 많이 하지 않아 고민 상담을 온라인으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대표적 진로상담 역시 교육부 주관의 커리어넷(www.career.go.kr)과 고용노동부 주관의 워크넷(www.work.go.kr)이 있고 커리어넷 진로상담을 전체가 공개로 하는 반면 워크넷을 본인이 공개, 비공개 선택할 수 있어서 비공개가 상대적으로 많다. 상담을 해주는 담당자도 커리어넷은 현직 교사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워크넷은 자체 전문가로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커리어넷 진로상담의 경우 17,000여건(월 평균 1,420건)으로 2019년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에서 팬데믹으로 진로상담이 많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는 두 기관 모두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워크넷도 진로상담이 2019년에 비해 분명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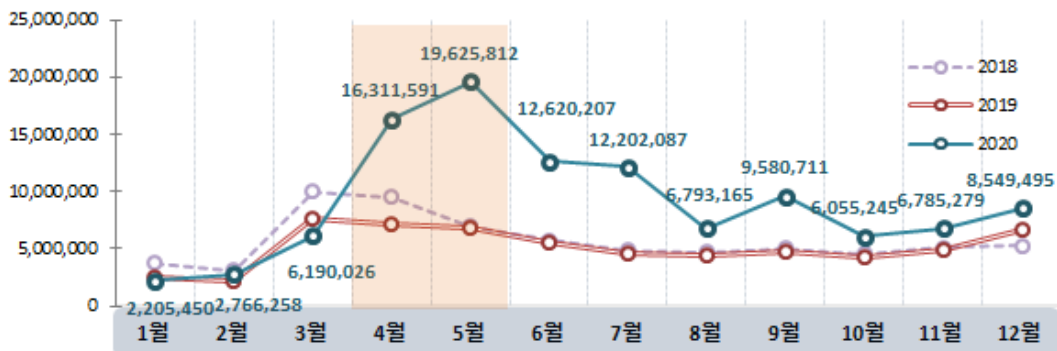
특히, 원격수업이 시작된 4월과 5월의 상담 신청 건수는 각각 2,256건, 3,078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배를 넘는 수치이며, 이를 통해 온라인 진로상담이 단위학교의 진로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함을 알 수 있었다.

3. 청소년 진로지도 지원

청소년들은 인터넷 보다는 모바일을 더욱 더 많이 사용하는데 모바일용 ‘커리어넷’ 앱에서도 진로심리검사, 직업·학과 정보, 진로 동영상, 진로상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2020년에는 약 27만건 다운로드하였으며, 커리어넷 전체 연간 방문자는 약 1,234만명에 방문 수는 약 1,766만건, 페이지뷰는 1억 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개학 시기에 커리어넷 방문이 급속도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4월 실시간 요청 지수가 약 5,000여서 2020년 4월에는 27,00 수준으로 약 5.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개학 시기 커리어넷 페이지뷰 현황]



청소년 진로지도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도 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별로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와 공동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진로교육지원센터)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청소년의 진로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곳은 학교밖 청소년들 이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팬데믹이 1년을 지나간 이 시점에도 예전처럼 돌아갈 날을 예측하기 힘들다.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것도 만만치 않는 일이지만 진로지도 또한 만만한 일이 아니다. 더욱 더 많은 기관들과 업무 담당자들의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진로지도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느 하나 쉬운 일은 없지만 우직하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 할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점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이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writing.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margin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column for notes or a head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font in the upper right corner.

[illegible]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as a memo pad. It features horizontal ruling lines spaced evenly down the page. A single vertical line runs parallel to the left edge, creating a narrow margin. In the upper right-hand corner, the word "MEMO" is printed in a bold, black, sans-serif typeface.

청소년정책 토론회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청소년

인쇄일 : 2021년 2월 24일

발행일 : 2021년 2월 26일

발행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7층
(044-415-2114)

발행인 : 김현철

인쇄처 : 경성문화사 (044-868-3537)

* 이 책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 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